

# 자궁암, 조기에 발견하면 친구의 권유로 받은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운암APT 332동 502호에서 회사원인 부군 강영일(42세)씨와 아들 3형제를 두고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주부 李光姬(37세)씨

평소 건강에 대해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활했던 그녀. 우연하게 친구의 권유로 건협전남지부를 소개받아 생애 처음으로 자궁암검사를 받았다.

그녀는 검사동기를 자신의 치부를 제3자에게 들어내지 않는 자궁암 자가채취기의 사용법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자궁암



# 100% 완치된다

## 검사에서 찾아낸 자궁암!

그러나 10일 후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엄청난 시련의 굴레에 속박되는 여인으로 변했다.

자궁암Class 4로서 빠른시일내에 수술을 필요하는 건협 전남지부의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삶의 체념, 고통의 시간, 가정의 방황 그리고 수술...마치 꼭짜인 생활계획표처럼 그녀에게는 어둠이 밀려 왔다.

건강소식은 李光姬씨의 아픈 과거를 더듬어 가면 건강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많이 좋아졌어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의 질문에 수줍은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여는 李光姬씨는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독실한 천주교신자로서 항상 믿음과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덧붙여 말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평소 건강에 대해 뚜렷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녀는 검사의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지난 84년도에 첫번째 출혈을 했어요. 그후로 이상이 없어 잇고 생활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날(87년 1월) 우연하게 친구와 대화도중 이야기가 나왔지요. 자세한 저의 말을 들은 친구가 건협 전남지부를 소개하더군요. 친구역시 그곳에서 검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하더군요. 또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나의 치부를 제3자에게 들어내지 않는 자궁암자가채취기의 검사법이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말끝에 여운을 남기는 그녀의 말에서 무엇인가의 후회감이 석인 것을 기자가 느낄때 『이제는 정기적인



백숙희 검사계장은

『검사결과 Class 4가 나왔어요. 전화를 하여 다시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알려드렸는데 李光姬씨는 오시지 않더군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꼭좀 내원해서 재검을 받아라고 신신 당부 했습니다.』

건강검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검사 후 결과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깊은 관심은 없었어요. 집안생활도 바쁘고 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뚜렷한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결과 또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솔직히 회담한다.

『검사결과 Class 4가 나왔어요. 전화를 하여 다시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알려드렸는데 李光姬씨는 오시지 않더군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꼭좀 내원해서 재검을 받아라고 신신 당부 했습니다.』 옆자리에 같이 한 백숙희전남지부 검사계장이 당시의 상황을 보충 설명 해 준다.

『저희는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 면봉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역시 Class 4였지요. 일단은 이광희씨가 당황하지 않게 자궁암의 발전과정을 설명드리고 전남의대 최호선박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지요.』백계장은 처음 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왔을때 무척 당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원자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설마, 설마, 설마 했던 검사결과.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검사결과에 대해 설마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자궁암이라니 말이 안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와서 재검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아도 가지 않았어요. 백계장님이 자주 전화를 해서 마지못해 재검을 받았읍니다. 간호원이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더군요. 결과는 마찬가지로 었어요.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설마 자기가 암이란 병에 걸렸을까 하는 의심이 더욱더 많았다는 그녀는 지금생각하면 백숙희검사계장의 도움에 정말로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살만큼 살았다. 수술을 안해도 10여년을 살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전남의대 부속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오래 가지는 않더군요. 아빠와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모마리아님께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지요. 제몸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것은 아이들을 볼 때 였다고 강조하는 그녀는 한때 삶을 포기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집요하게 질문하는 기자의 말에 『말로서는 표현 할 수 없는 고통과 방황 그리고 죽음까지 연결되는 엄청난 시간이었다고』 말끝을 맺는다.

## 건강에 대한 무지를 처음으로 한탄 했습니다.

『저의 걱정을 듣고 아빠와 주위사람들이 설마 무슨일이 있겠느냐면서 안심시키더군요. 사실 당시만해도 뭐 아는게 없었어요. 그냥 암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때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지를 처음으로 한탄했다고 솔회한다.

## 빠른 시일내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이 안되더군요. 아빠와 의논한후 전남의대를 찾아가 진협검사결과보고서를 보여주고 조직검사를 받았읍니다.』

그녀는 또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빠지게 된다. 『자궁경관상피내암 및 경관침습이라는 어려운 병명을 알려주곤 빠른 시일내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아찔해지더군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병원에서의 한가닥 희망이 여지없이 무너지다니……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말을 못했어요.』 당시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했다는 말에서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그릴수가 있었다.

87년 1월 10일 병원 입원, 19일 수술.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아빠는 모든 생활을 접어두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그녀에게는 아빠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힘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드디어 2월 10일 입원을 했다고 말한다.

## 수술 성공률 100%로, 조기에 발견된 상태입니다.

『이광희씨의 경우는 질확대경검사에서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84년에 두번의 출혈이 있었다는 말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병명은 자궁경관 상피내암 및 경관 침습입니다. 다시말해 암세포는 발견되었는데 다행이 속으로 침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2월 19일 이광희씨의 수술을 집도 한 전남의대 최호선 박사의 말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최선의 예방책.**

『조기에 발견된 상태였기에 수술성공을 100%였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났다면 암세포가 자궁내부까지 침입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최호선박사는 자궁암 조기 발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결혼한 여인들은 정기적으로 일년에 1회내지 2회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암 같은 경우 0기에서 5기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확대됩니다. 歐美의 경우 자궁내암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궁경부암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하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최호선박사의 얼굴에서 의술의 근본을 알 수가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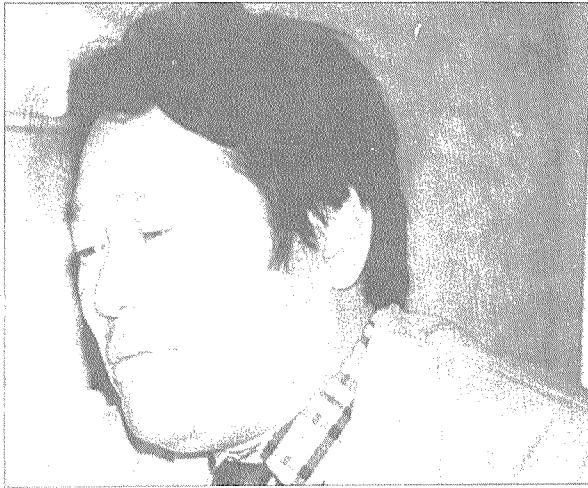
『16일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믿어지지 않기도 했구요.』 고개를 푹 숙인채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잠시 물기가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이광희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입니다. 건협과 아빠, 전남의대 최호선박사님, 그리고 주위에서 정신적으로 도와주신 이웃 사



김연수사업과장은

『또한 올해에는 청사를 증축하기 때문에 내원자 확보에도 역점을 둘 것 입니다.』



### 최호선 박사는

『이광희씨의 경우는 질확대경  
검사서 자세히 알수 있었음  
니다. 또한 그녀가 84년에 두  
번의 출혈이 있었다는 말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병명은 자궁  
경관 상피내암 및 경관 침습입  
니다.

람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함께 해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 왔어요. 제 자신이 느껴도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그의 말 속에서 기자는 육체적인 건강이 모든 생활의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 주는 근원임을 새삼 느낀다.

### 전남도민 모두에게 건강한 생활을 제공 할 것입니다.

『전남지부는 도민 모두에게 건강할 때 건강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알차게 내실을 다진 후에 정확한 검사에 임할 것입니다.』 정밀분석형인 전남지부 김연수 사업과장의 87년도 사업청사진이다.

『또한 올해에는 청사를 증축하기 때문에 내원자 확보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내원자에 대한 편의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원자대기실과 상담실을 확장하며, 일단 협회에서 검사를 받은 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모든 일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남도민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홍보사업부문에서는 매스컴, 신문, 잡지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연차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구전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전남지부의 위치를 새로이 정립할 계획입니다.』 그는 전남지부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해가 올해인지도 모른다고 덧붙여 말하는 그의 자신에 찬 말속에서 기자는 전남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날과 건강검사가 조만간에 정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오일민·글)